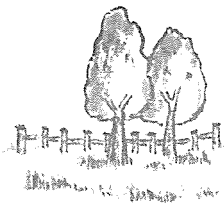


肛門 衛生學



孫 哲

공중탕 (公衆湯) 바로 쓰기 캠페인

전남대학교에 있으면서 잠깐 동안 맡아야 했던 간호대학에서는 「도라지」라는 이름의 교지(校誌)가 해마다 발간되고 있었다.

학장이라는 직함이어서 권두언(卷頭言)을 손수 써야 된다는 편집 담당 학생들의 청탁 아닌 분부쫓았다. 매양 똑같은 형식적인 미사여구(美辭麗句)는 난생 질색인 나로서는 무엇을 쓰느냐가 정작 고민거리였다. 구체적인 교육이어야 하겠다는 일념에서 며칠을 두고 골돌했던 나머지 가까스로 생각해냈다는게 공중탕(公衆湯) 바로쓰기라는 10배 요량의 원고가 되었다. 남여간에 가장 불결한 곳인 항문부터 미리 헹구고 깨끗이 씻

은 다음 비로소 공중탕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에티켓임을 강조한 그야말로 초보적 상식을 편데 불과한 내용이었다.

당혼(當婚)한 처자들이 읽는 교지 그나마도 허두에다 하필이면 그런 망칙한 글을 골라 써야 할 건 무엇이람 하는 핀잔인가 하면,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나이 입이 분명하거늘 발가벗은 채로 잠입할 수도 없는 터, 벽에 구멍이라도 뚫어놓고 아낙들의 목욕하는 모습을 살살이 엿볼 것이 아니냐는 등 입방아들이 너무나도 자자했었다. 개중에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서 저녁마다의 밀물치기를 배운 바 있어 여성은 구저분한 남정네처럼 그럴 필요가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라며 마

구 대드는 학생까지 있었다.

지레 짐작한 바이어서 그냥 웃어 넘기긴 했으나 애당초 나로서도 남의 편잔이나 웃음을 사기 위한 가벼운 뜻으로 그 글을 쓴 건 절대로 아니었다.

뺨찢나개 나서는 주말마다의 낚시터에서 돌아오기 바쁘게 뜨끈뜨끈한 탕물 속에 흥근히 잠겨 땀을 뺌으로 쌓인 건전한 피로를 한꺼번에 풀고자 우선 달려가는 공중탕이었다.

아이들이사 수영장 기분을 내어 탕속으로 다짜고짜 풍덩 뛰어드는 처사쯤 얼마든지 봐 넘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장성한 어른들마저 덜렁덜렁 치부(恥部)에 매달려 볼품 사나운 양물(陽物)만은 무슨 영문인지 그리도 고분고분 주무럭거리며 비누질까지도 곧잘 치면서, 정작 깨끗해야 할 항문은 아랑곳없이 그냥 물속에 드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되면 그 술한 사람의 항문 주위에 더덕더덕 말라붙어 있을 대변 찌꺼기가 몽땅 녹아 퍼질 것이겠고 자키나 엄청나는 대장균과 잡균들이 물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을 것인가고 생각들어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찌꺼기 과장한다면 공중변소에서 대변을 갖다 풀어 논 더러운 물을 흠뻑 들러쓰고 나서 개운히 목욕하고 난 기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까지 하였다. 그러기에 기껏 목욕탕을 찾은 나는 몸을 녹이기는 커녕 샤워에 대충 행구기만 하고 그냥 돌아올밖에 없곤 하였다.

남탕 꼬락서니는 그렇다 치고 여탕의 경우는 어떨까 싶어 여대생들 강의시간에서나 누구든 서로 마주쳤을 때마다 공

중탕 얘기를 던지지 꺼내어 조심성스레 묻기도 하였고 눈치껏 살피기도 했으나, 솔직이지 내 보통학교 때 배웠던 만큼도 한번이나마 속시원한 답변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이렇듯 그쪽 사정도 엇비슷하리라는 자신을 얻었기에 그렇듯 서슴없이 뇌까린 것 뿐이었다.

나이 들면 항문을 꼭 다물게 하고있는 괄약근(括約筋)의 세(勢)가 덜 미칠 뿐 아니라, 노상 변이 꼭 차도록 듬직하게 지탱하고 있어야 할 직장(直腸) 또한 점차 힘이 딸려 자칫 아래로 처지기 일수이어서 모르는 사이에 변이 항문 밖으로 흘러 내리는 수가 허다하다. 속된 말로 늙으면 똥을 저리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하물며 자진 용변후의 청소작업마저 게을리 한다면 무슨 꼴이 되겠는가 말이다.

꼭두새벽 칩간(廁間)길부터 일과가 시작되는 내 자신을 예로 들어보겠다. 서양 변기에 앉아 시원스레 뒤를 본 다음 8점으로 접은 두루마리 휴지 15센티 가량의 길이를 절반씩으로 두번 겹쳐가면서 세번 밑을 닦는다. 잇달아 같은 8점 10센티를 물어 잠깐 적셔 알맞게 추진 다음 절반을 접어 16점을 만들어 되풀이 접으면서 두번을 닦는다. 그리고 끝으로 8점 5센티로 항문의 습기를 말끔이 없앤다. 그러니까 용변이 끝날 때마다 최소한 6차례 밑을 닦는 셈이된다. 이만 정도도 신식 아파트로 옮기게 되어 수세식 변소와 목욕탕이 겸해 있기 망정이지 그렇지 못했던 옛날에는 어쨌던가 싶어 정녕 까마득할 따름이다. 우리네처럼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 풍습인데다 조건을

갖추기 힘든 곳에서는 남성도 여성 못지 않게 밑물이라도 자주 치는게 바람직 하겠다

또한 언제나 상쾌한 향문과 음부(陰部)를 간직하는데는 용변 직후라 할지라도 수도건 샘이건 간에 샤워처럼 흐르는 물에 말끔히 행구어 내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여성에게는 밑물치기라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며 대들었던 그 여학생도 지금쯤 어디선가 어엿한 어머니 됐다.

언제든 그녀를 만나면 딸아이가 있는

나는 물음에 고개가 세로라면 다음같은 사지선다형 문제를 가로 써서 주리라 작정하고 있다.

뒤를 본 다음 휴지로 밑을 닦는 방향 중 다음의 어느 것이 옳다고 따님에게 가르치겠읍니까.

- ① 左 → 右
- ② 右 → 左
- ③ 前 → 後
- ④ 後 → 前

(1985. 3. 10)

<필자 = 전남의대 명예교수>

생활정보



일상생활의 다이어트 지침

- 1. 굶지 마라. 한 끼니를 굶으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법이다.
- 2. 간식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라.
- 3. TV를 보면서 먹지 말아라.
- 4. 냉장고 옆에는 가지 말아라.

- 5. 식사 후 곧바로 잠자리에 들지 말아라. 서너 시간 뒤에 자는 것이 좋다.
- 6. 다른 사람에게 자주 자신의 다이어트방법을 설명하라.
- 7. 매일매일의 칼로리를 계산하여 체크하라.
- 8. 기름기, 설탕, 전분이 들어있는 음식은 가끔씩 피하라.
- 9. 식사하기 전에 물을 한두컵 미리 마셔라.
- 10. 운동량을 매일마다 조금씩 늘려라 중요한 것은 운동시간보다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 11. 몸무게를 매일 달아라.
- 12. 영양식을 하라.
- 13. 항상 신선한 음식을 들어라.
- 14.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 15. 거울속에 비친 자신의 나체를 보라.